

요약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이 2035년경 고갈될 수 있음을 경고함. 또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각각 7%, 1.8%에 그쳐 다층 체계 구축이 미흡함. 이런 연금 공백을 배경으로 2030년까지 개인연금 시장은 7조 위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보험회사들은 연금·건강·장기간호의 통합 전략을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의 연금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출산·청년 실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로, 3층 연금 체계 전반에 걸쳐 가입률과 납입 참여율이 낮아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2억 2,000만 명(15.6%), 노인부양비 22.8%로 근로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며, 생산가능인구(15~59세)는 2011년 정점 대비 8,274만 명이 감소하였고, 청년 실업률(16~24세)은 16.5%(2025.2)로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자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¹⁾
 - 1층 공적연금은 보험료율 합계 24%(사용자 16%+근로자 8%)이나²⁾ 전체 노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약 50% 수준에 그침³⁾
 - 2024년 말 기준 그간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적립금이 7.1조 위안에 달하지만,⁴⁾ 중국사회과학원(CASS)은 현 추세 지속 시 2035년 전후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함
 - 도시 근로자와 도농 거주자(도시 비임금과 농촌 거주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각각 3,742위안, 223위안으로 그 격차는 16배 이상이어서 도농 간 연금격차는 매우 심각함
 - 2층 기업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사용자, 근로자 각각 최대 8%, 4% 범위에서 노사 협의로 결정되며, 기존 공적연금 부담이 높아서 가입자는 2024년 3,240만 명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의 약 7%에 불과함⁵⁾
 - 이미 높은 공적연금 보험료율(24%)에 따른 추가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이 저조함⁶⁾
 - 운용 성과가 연간 단위로 평가되고 자격 유지에 반영됨에 따라 단기 성과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유도되고 이로 인해 주식 등 장기 고수익 자산 비중은 약 10~15%에 그쳐 장기 수익률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⁷⁾
 - 3층 개인연금의 경우 2024년 12월 전국 확대 시행 이후⁸⁾ 계좌는 7,280만 개 개설되었으나 소득 불안에 따른 납입 여력 부족, 낮은 수익률,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가입 가능 인구 대비 실제 납입자 비율은 약 1.8%(개설 가입자 대비 납입자 비율은 약 25%)임

1) CKGSB Knowledge(2025. 5.), "Impact of China's Pension System on Consumption"

2) OECD(2024),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24"

3) ScienceDirect(2025. 10.), "Reforming China's public pension system: Fiscal sustainability and the challenge of formality-based inequality"

4) China Daily(2025. 9.), "China increases basic pensions by another 2%"

5) Caixin Global(2025. 2.), "What Problems Still Plague Enterprise Annuities After 20 Years?"

6) CFR(2025. 1.), "What Is the Chinese Pension System and Why Are Its Problems Hard to Fix?"

7) CFA Institute Enterprising Investor(2022. 3.), "China's Enterprise Annuities: Long-Term Money, Short-Term Investment"

8) China Briefing(2024. 12.), "Private Pension Scheme Expands Nationwide in China"

- 이는 기업연금 가입률(7%)의 4분의 1에 불과하여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표 1〉 중국 3층 연금 체계 주요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1층 공적연금	2층 기업연금	3층 개인연금
보험료율	사용자 16%+근로자 8%(합계 24%)	사용자 최대 8%+근로자 최대 4%	연 최대 12,000위안
가입자 수	10억 7,000만 명	3,240만 명	계좌 7,280만 개
가입률	노동인구의 약 50%	기업 근로자의 약 7%	납입자 비율 약 1.8%
주요 과제	2035년 고갈 경고, 도농 수급 격차	중소기업 가입 기피, 저조한 투자 수익률	납입 참여율 저조, 제도 신뢰 부족

자료: CKGSB Knowledge(2025. 5.); OECD(2024); Caixin Global(2025. 2.); ScienceDirect(2025. 10.)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연금 재정 위기의 공백을 배경으로 개인연금(3층) 시장은 2030년까지 7조 위안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주요 보험회사들은 연금·건강관리·장기간호를 통합한 생태계 전략을 통해 핵심 금융 제공자로 부상하고 있음

- KPMG·ASIFMA는 개인연금 시장이 2030년 7조 위안(약 9,8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⁹⁾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203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중 55조 위안이 보험·연금 상품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¹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 개인보험 시장이 2035년까지 연평균 5~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¹¹⁾
 - 2024년 초 기준 연금보험 운용자산 규모는 6조 위안, 가입자 약 1억 명에 달하며,¹²⁾ 사적연금의 성장 동력으로 ①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수요 확대, ② 600조 위안의 가계 금융자산이 보험·연금 상품으로 재배분 여지, ③ 개인연금 전국 확대 등의 정책 지원으로 꼽힘
- 이에 핑안그룹은 ‘보험+건강+돌봄’ 통합 생태계 전략으로 보험 판매에 건강관리·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2024년 상반기 기준 1,600만 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64개 도시에서 12만 명 이상에게 재가(在家)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임¹³⁾
 - 통합 서비스 가입 고객이 핑안 생명의 신계약가치(NBV)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통합 모델이 계약 유지율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 신규 계약자의 신계약 보험료 기여 비중이 2021년 19%에서 2023년 34%로 확대되는 등 실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¹⁴⁾
 - 통합 서비스는 세제적격 연금보험, 중대질병·장기간호 특약 결합 상품, 시장금리 연동형 연금 등 50종 이상의 라인업을 운용 중임
- 글로벌 보험회사인 AIA는 2024년 안후이·충칭·산둥 저장성 지점 설립 승인을 획득하여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70% 이상에 접근 가능한 영업망을 확보함¹⁵⁾
- 알리안츠·중국인수(中国人寿) 등도 장기간호·중대질병·연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결합 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의료비 리스크를 동시에 헤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호응을 얻고 있음

9) KPMG-ASIFMA(2023. 6.), “China Pensions Reform”

10) HSBC Global Research(2025), “China’s Pension Reform”

11) BCG(2024. 9.), “What’s Next for China’s Personal Insurance Market”

12) International Banker(2025. 9.), “China’s Silver Economy: The Financial Sector’s Pivotal Role in Navigating Unprecedented Demographic Change”

13) Ping An Group(2024), “Summary of Solvency Report for 1H 2024”

14) Ping An Group(2024), “China’s Pension Reform Creates Opportunities for Financial Firms”

15) AIA Group(2024. 11.), “AIA China Accelerates Geographical Expansion with Approval to Prepare a New Branch in Zhejiang”